

사회

6·2 지방선거사범 전국 최다 광주·전남 변호사들 '선거 특수' 빚긋

“전관·거물급 잡아라”...수임료도 경총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광주·전남 지역 변호사들이 '선거 특수(特需)'를 누리고 있다. 광주·전남이 이번 선거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사범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됨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지난동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한 지역 변호사들이 6·2 선거 이후 연일 분주하다. 선거법 위반이나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된 당선자와 출마자, 선거 관계자 등이 앞다퉀 변호사 사무실을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부 당선자들은 당선 무효형을 피하

기 위해 고위 법관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의 사무실을 노크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장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주요 사건은 착수금만 1000만~2000만원을 웃돌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 일부 유력 변호사의 경우 성공보수가 여대에 이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수임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당선자와 선거 출마자들 사이에는 '변호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 선거법 위반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고액의 수임료를 치르더라도 유력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향이 짙다. 광주의 경우 일부 법원장이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을 선별해서 수임할 정도로 호황이다.

이처럼 지역 변호사에게 선거 관련 '반짝 특수'가 닥친 것은 광주·전남이 전국에서 선거사범 입건 수가 가장 많은 만큼 과열 양상을 빚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광주·전남에서는 6·2 선거를 전후로 선거 사범 440여명이 입건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의 선거 사범(2300여명)의 5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여기에 광주·전남은 선거 이후 낙선자 등의 고소·고발까지 이어져 당선자 관련 변호사에게 선거 관련 사건 수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6·2 선거의 경우 민주당 경선과정부터 과열돼 '경선 무효 가져분' 신청이 잇따른 것도 변호사업계의 '호황'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모두 19건의 '경선 무효 가져분' 신청이 제기됐다.

변호사 업계에선 이번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가져분 신청의 수임료가 평균 400만~500만원 선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 당선자들은 가져분 신청과 관련해 1000만원 이상의 수임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6·2 선거가 경선 과정부터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변호사들의 수입 경쟁도 치열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 동물원 내 코끼리 타기 체험장. 지난달 3일과 13일 잇따라 태어난 아기 코끼리 구경은 요금 5000원을 내고 '코끼리 타기 체험'에 참가해야 가능하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기코끼리로 돈벌이?

우치동물원 "5000원 더 내야 구경"

광주 우치동물원이 아기 코끼리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외에 추가로 돈을 내도록해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주 우치동물원은 지난달 잇따라 태어난 아기 코끼리를 어미 코끼리 타기 체험(5000원)과 함께 별도 사육장에 관리, 관람객들이 아기 코끼리를 보려면 사실상 5000원을 더 내야 한다.

6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임신한 코끼리 두 마리 중 지난달 3일 라오스산 암컷 '쏘이'가 몸무게 80kg의 수컷(이름 우치)을 출산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나머지 한 마리인 '봉이'도 80kg의 암컷(우리)을 낳았다.

현재 아기 코끼리 두 마리는 기린 우리 옆 코끼리 사육장에서 직선거리 5m 떨어진 코끼리 타기 체험장에 마련된 별도의 우리에서 사육되고 있다. 관람객들이 코끼리 타기 체험을 해야 아기 코끼리 관람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우리를 옮겨 둔 것. 코끼리 타기 체험요금은 어른 한 사람에 5000원이다.

이에 대해 관람객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된 아기 코끼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관람객 이모(33·광주 남구 노대동)씨는 "두 살 배기 아들과 아기 코끼리를 보러 동물원을 찾았는데, 아기 코끼리는 천막에 가려 보이지 못했다"며 "코끼리 타기 체험을 해야만 볼 수 있게 해줬는데, 아기 코끼리가 무슨 미끼 상품이라도 되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우치 동물원 관계자는 "관람객들이 대거 몰릴 경우 아기 코끼리들이 놀라는 일이 종종 있어 격리시킨 것 일 뿐"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석면실태 점검 10곳 영업정지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노동청은 5월부터 지난 2일까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석면관리실태를 점검, 10개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한 업체는 건축기사 보유 자격자를 채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북구의 한 업체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직접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다가, 다른 업체는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에 제출한 근로자 대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돼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등 3개 업체가 영업정지, 3개 업체는 과태료, 4개 업체는 경고 처분을 받았다.

노동청 관계자는 "등록업체의 석면관리부실은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를 통해 근로자와 주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토착비리 362명 적발

공무원이 187명...전체의 절반이나

광주·전남지역에서 토착·교육비리를 저질러온 지자체장과 공무원, 교직원 등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경찰은 올해 상반기 토착·권력·교육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362명을 검거하고 24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187명으로 전체 적발 인

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광주경찰은 올 상반기 127명의 비리 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국가보조금 예산 낭음이 56명(44.1%)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 50명(39.4%), 문서위조 25명(19.7%)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 73명, 사이버기자 19명, 교

원 등 18명 등이 적발됐다.

전남경찰도 같은 기간 토착·교육비리 사범 235명을 적발하고 1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114명이 적발돼 5명이 구속됐으며, 학교 교비 등 12억4000만원을 횡령한 목포지역 모 사학재단 이사장 박모(66)씨 등 3명이 입건됐다.

유형별로는 ▲보조금·공급 횡령 71명(30.2%) ▲공사수주 등 금품수수 55명(23.4%) ▲단속무마 금품수

수 22명(9.4%) ▲사이비기자 등 갈취 22명(9.4%) ▲기타 65명(27.7%) 등이었다.

한편, 경찰청은 경관조명공사 수주 과정에서 1억9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김종식(59) 전 해남군수를 구속한 것을 비롯, 전국의 토착·교육비리 사범 6208명을 검거했다.

직업별로는 공무원이 2948명 검거됐으며, 단채장 7명, 지방의원 89명, 4급 이상 52명, 5급 222명, 6급 이하 1천700명, 공기업 직원 등 준공무원 245명, 교원 442명, 기타 191명 등이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병무 대사 조인성 상병달고 광주 방문

병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영화배우 출신 조인성 공군 상병이 6일 조선대 서석홀 대강당에서 '병역이야기'를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또 조 상병은 이날 광주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입영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인회를 여는 등 홍보활동을 벌인 데 이어 조선대를 방문해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편의점 자위방범 효과 없다

순천경찰, 강도사건 피의자 4명 검거 CCTV 얼굴식별 불가·전화기 무용지물

지난 4일 순천에서 발생한 편의점 강도사건의 피의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편의점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나, 수화기를 들고 5초 이상 길근 등 나머지 2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편의점에 설치된 CC-TV·무다이얼링 전화기는 범인 검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편의점의 '자위방범 체계'가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본보 7월 6일자 6면)

순천경찰은 6일 손번호로 가장해 편의점에 들어가 흥가로 종업원을 위협, 금품을 빼앗은 김모(18·순천시·동남·여) 4명을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4일 새벽 3시50분경 순천시 조례동 모 편의점에 들어가 흥가로 종업원 박씨(여·23)씨를 위협,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3만원을 빼앗아 달아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인근에서徘徊 중이던 신양 등 공범 2명을 붙잡은 뒤 다음날 김군 등 나머지 2명을 체포했다.

하지만 편의점에 설치된 CC-TV·무다이얼링 전화기는 범인 검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번에 강도 피해를 입은 편의점 내부에는 모두 3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범인들이 마스크·모자를 쓰고 범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인상착의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특히 CC-TV가 천장·모서리에 설치돼 범인의 얼굴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데다, 해상도도 높지 않아 정확히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또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사용한 전화기는 카운터에 설치된 무다이얼링 전화기가 아닌 일반 전화였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성폭행범 도주 고속도로 추격전

○초동생 성폭행 용의자가 고속도로에서 30분간 위험천만한 도주극을 벌였으나 순찰차 7대를 투입하며 대대적인 추격에 나선 경찰에 달미.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6일 새벽 4시경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A(11)양을 성폭행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도주극을 벌인 이모(35)씨를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양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서해안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질주하며 무려 68km를 달아났으나 긴급 투입된 순찰차 7대가 자신의 차량을 둘러싸는 바람에 체포됐다고.

연합뉴스

날씨가 더워서... '짜증 폭력'

최근 30도를 웃도는 후텁지근한 날씨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을 휘두르는 화풀이성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5일 "양보 운전을 하지 않는다"며 여성 운전자를 폭행한 이모(40)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15분경 광주시 서구 광천동 모 백화점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앞서 가던 박모(여·28)씨가 양보해 주지 않자 정지신호를 보낸 후 차에서 내려 박씨의 머리를 잡아 흔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오후 8시40분경에는 동구

"양보운전 않는다" 여성폭행 친구·이웃간 말다툼 폭행도

소매동 S오락실에서 자신의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전모(18)군을 때린 정모(19)군 등 2명이 동부경찰에 붙잡혔다.

친구·이웃 간 사소한 말다툼이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지난 3일에는 밤 9시에 북구 문흥동 C 노래방 앞길에서 이모(33)씨가 친구

정모(33)씨에게 잡자 "태워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정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골목길 주차 시비로 인해 이웃 간에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흔하다.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경 남구 봉선동 모 할인마트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권모(39)씨가 주차를 해 놓고 승용차를 일찍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모(29)씨를 폭행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희자 kimho@kwangju.co.kr

지역의 각종 소식을 들어드립니다.

월간보정기를 쓰십시오. 낯익은 사람이 되어 드립니다.

본점: 광주광역시 남동성당사거리 227-9940 / 순창점: (국립농림부) 227-9970

국제보정기